



들고양이에 먹히고 유리창에 부딪히고…

철새들의 수난

중간 기착지 흥도·흑산도서 3년새 165마리 사체로… 보호대책 마련 시급

전남도내 대표적 청정지역인 신안군 흑산면 흥도와 흑산도에서 국내 조류 중 74.6%에 해당하는 철새가 발견돼 주요 이동경로임이 재확인됐지만 사람들이 만든 인위적 환경에 의해 죽거나 다치는 사례가 많아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연구원 철새연구센터가 최근 발표한 '2007 조류 조사·연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4년 10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디도해 해상국립공원내 흥도와 흑산도에서 구조 또는 사체로 발견된 철새는 78종에 256마리에 달했다.

특히 죽은 채 발견된 철새 227마리 가운데 165마리가 인위적인 요인 때문이었으며, 자연사는 62마리에 그쳤다.

구체적 사인별로는 유리창 등 인공구조물에 의한 충돌(89마리·34.8%)이 가장 많았으며, 고양이에 의한 포살·탈진 및 아사(55마리·21.5%)

5%), 원인불명(29마리·11.3%) 등으로 나타났다.

인공구조물에 의한 충돌은 철새가 활동과 주요 이동경로임이 재확인됐지만 사람들이 만든 인위적 환경에 의해 죽거나 다치는 사례가 많아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구조물에 의한 충돌은 철새들이 흥도나 흑산도의 횟집이나 속박업소에 있는 유리창을 미처 보지 못하고 충돌해 죽은 것으로 분석됐다. 유리창에 매나 올빼미 등 맹금류의 사진이나 실루엣을 스티커로 만들어 붙여놓기만 해도 철새들이 무서워 도망가기 때문에 피해를 줄 수 있었지만 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멸종위기종이나 천연기념물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사고 발생 시기는 대부분 3~5월, 9~10월로 나타나 철새의 이동시기인 봄과 가을에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죽거나 다친 채 발견된 철새들은 2005년 39마리, 06년 52마리, 07년에는 164마리로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야생동물 치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수의사가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친 철새를 구조하더라도 마땅히 치료를 할 수 있는 수의사가 부족한 상황인 것이다.

또 갈수록 늘어가는 들고양이의 개체수를 줄이는 것도 철새를 보호하는 하나의 방법이지만 아직 시도되지 않고 있다.

국립공원연구원 철새연구센터 최창용 연구원은 "흥도와 흑산도 주민뿐만 아니라 탐방객들에게도 야생동물을 보호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야생조류 보호를 위해서는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과 사고 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철새연구센터는 지난 2005~2007년까지 3년간 흥도와 흑산도를 지나가는 철새들을 조사한 결과 모두 337종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야생동물 치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수의사가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친 철새를 구조하더라도 마땅히 치료를 할 수 있는 수의사가 부족한 상황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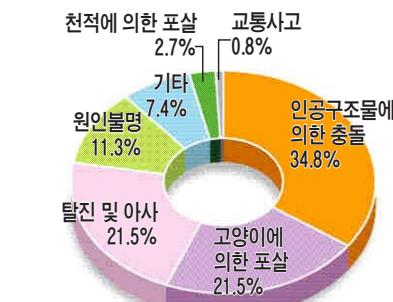
또 갈수록 늘어가는 들고양이의 개체수를 줄이는 것도 철새를 보호하는 하나의 방법이지만 아직 시도되지 않고 있다.

국립공원연구원 철새연구센터 최창용 연구원은 "흥도와 흑산도 주민뿐만 아니라 탐방객들에게도 야생동물을 보호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야생조류 보호를 위해서는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과 사고 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철새연구센터는 지난 2005~2007년까지 3년간 흥도와 흑산도를 지나가는 철새들을 조사한 결과 모두 337종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야생동물 치료에 대한 전문적인

■ 사인별로 본 철새들의 죽음



신안군 흑산면 흑산도와 흥도의 철새들이 횟집이나 속박업소의 유리창에 부딪혀 죽거나 들고양이에 먹히는 등 수난을 당하고 있다. 속박업소 유리창에 부딪혀 죽은 새매(원쪽)와 들고양이에게 물려 죽은 쥐발귀(개비)

〈국립공원연구원 철새연구센터 제공〉

美 연구팀 지구 온난화 분석

전 세계 조류(鳥類) 종 가운데 30%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인해 금세기 안에 멸종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제기됐다.

이는 미국 스탠퍼드대학과 듀크대학 공동연구팀이 지구 대기 온도 변화가 새들의 서식지와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적용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따른 결과다.

시뮬레이션은 유엔의 기후변화

21세기말 지구 대기온도 6.4도↑

전 세계 조류 30% 멸종 가능성

관련 예측 통계를 기반으로 이뤄졌으며, 이들은 총 60가지의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를 이에 대입해 현존하는 8천400종 이상의 조류 생존에 미치게 될 과급효과를 분석했다.

이 가운데 최악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21세기말까지 지구상의 대기

온도가 6.4도 상승하게 돼 전체 조류의 30%에 이르는 2천498종의 조류가 멸종에 이르게 된다고 연구팀은 결론지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기 온도가 똑같이 1도씩 상승한다고 해도 온도가 높은 지역에 사는 새들에 미치는 영향이 낮은 지역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류종의 대량 멸종이 전 세계 생태계의 붕괴를 야기하게 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케이건 세키 시오글루 연구원은 "가장 우호적인 시나리오인 2.8도 상승을 가정한다고 해도 400~550종의 조류가 멸종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상황이 이런데도 인류가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응을 늦춘다면 이 자체가 진정한 재앙"이라고 말했다. /도쿄=연합뉴스

대인동삼일부동산

한국부동산登記부동산 2008년 2월 20일 수요일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 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 질 비전 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어려워 삼가기를 대 표적인 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 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삼가전 문 소개업체인 광주에서 오랜 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보부동산컨설팅

한국부동산登記부동산 2008년 2월 20일 수요일

▶ 토지매매

- 대지 1525m² 건물 1,300m² 한반봉원작화
- 지상 3층, 지하 1층, 지상 1층
- 흥국은행 상환잔액 194억 원 대지 12,000m²
- 인접 흥국은행 상환잔액 558억 원 국토부 지적부
- 19,000m²

- 대지 면적 1,271m² 대지 197,119m² 대지 19,000m²

- 대지 면적 1,271m²